



‘청년 농부’ 꿈꾼다면 농부사관학교로 오라!

농협, 귀농 희망 청년 대상 영농 실무 중심 교육
2년간 졸업생 172명 배출...광주·전남 22명
올 4월~9월·6월~11월 진행...교육생 200명 모집

실습 위주 '정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가 올해 교육생 규모를 200명으로 늘린다.
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 농부사관학교 교육과정은 4월6일~9월25일(4기), 6월1일~11월27일(5기) 각각 6개월

간 진행된다.
농협은 한 학기당 교육생을 100명씩 모집하며 지난해보다 규모를 2배 늘렸다.
지난 2018년 첫발을 내디딘 청년농부사관학교는 1기 22명, 2기 68명, 3기 82명 등 1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역 졸업생은 광주 8명·전남 14명이 나왔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 40명, 충남 23명, 서울 16명, 경남 13명, 충북 8명, 경북 7명, 울산·인천 각 6명, 대구·대전 4명, 강원 5명, 제주 3명, 세종 2명 등이 농부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첫 수료자가 나온 2018년, 졸업생들의 영농 정착률은 63.6%(22명 중 14명)으로 나타났다. 1~3기 평균 영농정착률은 33.1%(172명 중 57명)로 집계됐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귀농을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형 교육과 이론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중심 모듈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 단계는 ▲기초이론 및 실습 ▲현장 인턴 실습 ▲비즈니스 플랜 ▲졸업 후 케어 시스템 등 4단계로 나뉜다. 교육생들은 국가기술자격증과 드론·굴삭기·지게차 등 농업용기계 기술자격 취득을 지원받는다. 이론 및 농작물 실습교육 672시간과 농업현장파견 교육 320시간 등 교육생들은 6개월 동안 합숙하며 총 992시간 교육을 받는다.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만 39세(198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농부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4~5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할 수 있으며, 5기의 경우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nhparan.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내면 된다.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협미래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및 각 시군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은 오는 2021년까지 경기도 안성시에 연면적 1만7154㎡(5189평) 규모 청년농부사관학교 전용 건물을 짓고 오는 2022년부터 연 교육생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다리·주꾸미로 봄철 에너지 충전

해수부 '이달의 수산물' 선정

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봄철 보양식 수산물 도다리와 주꾸미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다리는 가지미목 가지미과의 바닷물고기로서 광어와 닮았다. 정면에서 봤을 때 눈이 왼쪽에 몰려있고 입이 크고 이빨이 있다면 광어고, 반대로 눈이 오른쪽에 몰려있고 입이 작고 이빨이 없다면 도다리다.



도다리

주꾸미를 최대 20% 싸게 판매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달 28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

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참여 쇼핑몰들은 전복과 우렁쉥이(명게)를 1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1번가(-3월29일) 10~20%, 우체국쇼핑(선착순) 10~30%, 수협쇼핑(선착순) 15~40%, 옥션(3월2~8일·3월16~22일) 15%, 한국수산회(-3월31일) 30% 등 할인율과 행사기간이 쇼핑몰마다 다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부, 마늘 수급 조절...재배지 500ha 감축

올해 마늘 과잉 생산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달 안에 마늘 재배지 500ha를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 5090ha로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배면적(2만7689ha) 보다는 9.4% 작지만 평년 면적(2만4603ha) 보다 2% 넓은 수치다.
전남도는 올해 2만5000 농가가 평년 생산량(5만5000t) 보다 14%(7700t) 많은 6만2700t의 마늘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육 상황도 온화한 일동기 날씨 영향으로 평년보다 좋고, 수확 시기도 예년

보다 10여 일 빨라질 수 있다"며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밝혔다.
우선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을 생육단계에서 조절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 이달 말까지 500ha를 정리할 방침이다.
사전 면적조절을 하면 산지폐기에 드는 소요 비용은 수확기에 비해 3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4월 이후에는 월 2, 3회 작황을 실측해 면적조절 및 자율적 수급조절 등 단계적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달 28일 돼지고기 500kg을 직접 구매하는 등 '돼지고기 소비운동'을 벌였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면역력 키우는 돼지고기가 최고”

농협 전남본부 '돼지고기 더 먹기 운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급락한 돼지고기 가격이 회복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1kg당 돼지고기(지육·枝肉) 산지가격은 385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개년 평균 가격(4190원)에 340원(-8.1%) 못미쳤다.
농협 전남본부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달 28일 지역본부 1층에서 '전남농협 임직원 우리 돼지고기 더 먹

기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전남본부 임직원들은 800만원 상당 돼지고기 500kg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우리 돼지고기에는 면역기능 강화에 꼭 필요한 비타민B1과 셀레늄이 육류 중 가장 많이 함유됐다"며 "9가지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리 집에 봄을 들이자

농협 전남본부, 온라인 쇼핑몰 꽃나눔전

각종 행사 취소·축소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농협이 관련 기획전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몰(nonghyupmall.com)에서 '꽃으로 봄을 선물해요'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전에서는 장미, 수국, 프리지어 등 인기 꽃다발, 바구니를 무료 배송한다. 산세베리아, 백갈고무나무, 금전수, 해피트리 등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화분도 마련됐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달 18일부터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목포농협에서 '꽃나눔 고객 캠페인'을 진행했고 전남지역 농·축협에서 '새봄맞이 농·축협 고객 캠페인'을 열어 미니화분 500여 개를 우수 고객에게 나눠줬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